

#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동향](#)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분석)-美 디폴트 우려..금융시장 타격 시작됐나?
  - ◇ (시장진단)-美 금리 충격에 中 불확실성까지..코스피 바닥 단정하기 일러
  - ◇ (초점)-'통화정책 결정에 주택가격 명시적 고려'..서영경 위원 주장 현실화 가능성은
  - ◇ (달러/원 월간 전망)-대외 리스크 산적 vs '이미 반영' 인식..빅피겨 돌리나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mailto: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mailto: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함부르크에 설치됐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관련 광고판을 인부들이 철거하고 있다. 메르켈은 2005년부터 독일을 대표하며 장기간 지도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로이터/파비안 비머 기자)

##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10월1일 증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1,188.7	-1.0%	-8.6%	+6.5%	유로	1,1594	-1.0%	-5.1%	+8.9%
100엔 대비	1,062.5	0.3%	-1.0%	+1.1%	엔	111.05	-0.3%	-7.0%	+5.2%
유로 대비	1,368.5	1.0%	-3.1%	-2.3%	위안	6,4715	-0.2%	0.9%	+6.7%
위안 대비	183.05	-0.4%	-9.1%	-0.3%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다우존스	34,326.46	-1.4%	12.2%	+7.2%
코스피	3,019.18	-3.4%	5.1%	+30.8%	나스닥	14,566.70	-3.2%	13.0%	+43.6%
코스닥	983.20	-5.2%	1.5%	+44.6%	S&P500	4,357.04	-2.2%	16.0%	+16.3%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MSCI APxJP	631.07	-1.7%	-4.7%	+19.8%
국고채 3Y	1.633%	5.8bp	65.7bp	-38.4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국고채 5Y	1.961%	10.2bp	62.6bp	-14.5bp	미국채 2Y	0.266%	-0.6bp	14.5bp	-144.0bp
국고채 10Y	2.258%	10.6bp	54.5bp	+3.0bp	미국채 10Y	1.465%	1.2bp	55.3bp	-99.8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0(%)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0(bp)
유가(WTI)	75.88	2.6%	56.4%	-20.5%	한국 5Y	19.5bp	0.4bp	-2.4bp	+0.1bp
금(현물)	1,760.36	0.6%	-7.2%	+25.0%	일본 5Y	18.6bp	-0.2bp	3.6bp	-4.5bp
TR상품지수	3,060.32	0.8%	14.2%	+7.8%	중국 5Y	46.7bp	3.0bp	18.7bp	-3.6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정부 홈페이지 ⇒ [CLICK HERE](#)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10월 4일(월)>

- 공휴일

### <5일(화)>

- 통계청, 8월 온라인쇼핑동향(12:00)
- 기재부,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 <6일(수)>

- 한은, 9월말 외환보유액(06:00)
- 통계청, 9월 소비자물가동향(08:00)
- 금융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 <7일(목)>

- 한은, 8월 국제수지(잠정)(08:00)
- KDI 경제동향(10월호)(12:00)

### <8일(금)>

- 한은, 2분기 자금순환(잠정)(12:00)
- 기재부, 부총리 경제단체장 간담회(비공개)(14:00)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10월 4일(월)>

- 유로존 10월 섀프스지수 (17:30)
- 미국 8월 내구재주문 수정치 · 공장주문 (23:00)
- 중국 휴장

### <5일(화)>

- 일본 9월 도쿄 CPI (08:30)
- RBA, 통화정책회의 (12:30)
- 유로존 9월 마켓 서비스업 PMI 최종치 (17:00)
- 유로존 8월 생산자물가 (18:00)
- 미국 9월 마켓 서비스업 PMI 최종치 (22:45)
- 미국 9월 공급관리협회(ISM) 서비스업 PMI 최종치 (23:00)
- 중국 휴장

### <6일(수)>

- 뉴질랜드 연방은행, 통화정책회의 (10:00)
- 유로존 8월 소매판매 (18:0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0:00)
- 미국 9월 ADP 전국고용동향 (21:15)
- 중국 휴장

### <7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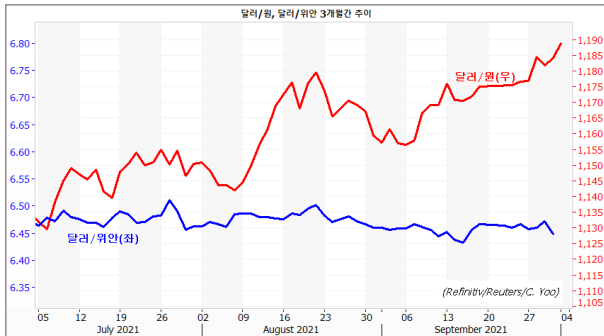
- 중국 9월 외환보유고
- 일본 9월 외환보유고 (08:50)
- 일본 8월 경기 동행 · 선행지수 (14:00)
- 미국 9월 챌린저 해고건수 (20:30)
-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1:30)
- 중국 휴장

### <8일(금)>

- 미국 8월 소비자신용 (04:00)
- 일본 8월 가계지출 (08:30)
- 일본 8월 경상수지 (08:50)
- RBA, 금융 안정 보고서 (09:30)
- 중국 9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 (10:45)
- 미국 9월 비농업부문 취업자수 · 실업률 (21:30)
- 미국 8월 도매재고 수정치 · 도매판매 (23:00)

## 국내 금융시장 주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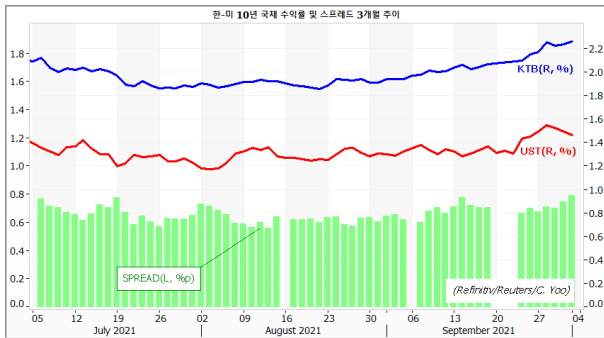
### <외환시장>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전망은 휴간합니다

### <채권시장>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전망은 휴간합니다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분석)-美 디폴트 우려..금융시장 타격 시작됐나?

뉴욕, 9월 30일 (로이터) - 미국 의회가 부채 한도 상향 조정 협상에 실패해 재정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특정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미국이 실제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는 거의 없지만 그간 정책 결정권자들부터 월가 은행들까지 부채 한도 조정 협상이 막판까지 갈 가능성에 대해 경고해 왔다. 제이미 다이먼 JP 모간체이스 CEO는 미국 정부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고,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해법을 찾지 못할 경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방정부 자금을 지원하는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정부 섯다운을 피할 수 있으며, 28조 4000만달러의 연방 부채 한도를 조정하는 법안과 관련해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경제에 미치는 "심각한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10월 18일 전까지 의회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시장에서는 일부 불안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슈왓금융연구센터의 랜디 프레드릭 매니징 디렉터는 "정부 섯다운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이들이 부채 한도 상한선을 두고 계속 게임을 한다면 이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상당한 매도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의회가 제때 조치를 취하지 못해 섯다운이나 채무불이행을 막지 못할 가능성이 부각된 점이 최근 주식시장 약세에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외환시장에서는 부채 한도 관련 우려가 달러 가치 상승에 일조한 것으로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보고 있다.

상황은 여전히 교착상태에 있다. 상원과 하원이 일시적으로 부채 한도를 올리는 별도의 법안에 투표할 가능성도 있지만,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이같은 표결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전에도 재정 위기 속에서 끝까지 경험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현 상황에 대해 비교적 태연한 시각을 보여 왔다.

슈왓금융연구센터의 캐시 존스 수석 채권 전략가는 "시장이 정말 부채 한도 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며 "이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되기에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지난 29일 S&P500 지수는 0.2% 상승하면서 월가가 이같은 문제에 크게 급박하지 않음을 신호하기도 했다.

미셸 완 웰스파고 애널리스트는 투자자들은 "과거 타협을 통해 디폴트와 기타 상환 문제를 피해왔다는 사실"에 안주하며 "그간 마감 시한이 대수롭지 않은 듯이 대응해왔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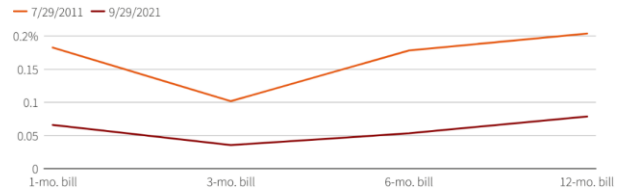
그러나 미국 국채시장에서는 부채 한도 관련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었다. 마이크 퍼브스 톨배큰캐피탈어드바이저스 CEO는 27일 노트에서 1개월물과 "디폴트 리스크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3개월물 가격을 비교했을 때 긴장감이 나타나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아직 2011년, 2013년, 2015년만큼 급격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 국채 1개월물 수익률은 0.07%로 3개월물 수익률 0.04%보다 높다. 올해 초 두 국채의 수익률은 0.08% 부근이었다.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은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낮더라도 디폴트 리스크가 있는 법안 문제는 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일부 수익률이 장기물 수익률보다 높아질 수 있는데 이는 주로 상승 곡선을 그리는 수익률 곡선에서는 흔치 않은 현상이다.

### Debt ceiling stress

Treasury Secretary Janet Yellen says the government will run out of cash around October 18. The impact on markets so far has been mild, but some worry is working its way into the T-bill market with bills maturing in the next month now yielding more than those maturing later. The same thing happened in 2011, but the market is not quite in the same level of stress yet.



Note: The horizontal axis shows the yield on short term U.S. Treasury debt, with 1-month bills yielding more than 3-month paper  
Source: Refinitiv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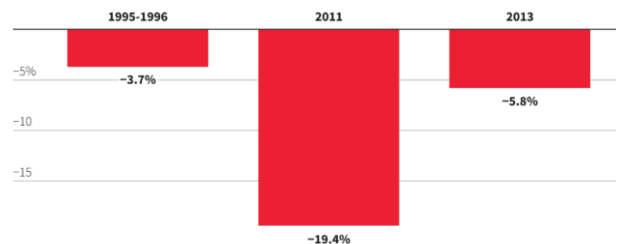
BMO의 애널리스트들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여전히 워싱턴에 쏠려있기 때문에" 수익률 곡선 앞쪽의 왜곡 현상은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될 듯하다고 말했다.

TD 애널리스트들은 또 다른 우려 신호로 거래량이 많지 않은 미국 신용부도스왑(CDS)이 급격하게 상승했다는 점을 지목했다.

과거 위기 때 시장은 크게 흔들렸지만 충격은 일시적이었다. 2011년 미국의 기술적 디폴트 가능성과 이에 따른 신용등급 강등으로 S&P500 지수는 고점에서 근 20% 급락했지만 이후 반등했다.

### Weakening Effects from Debt Ceiling Standoffs

Markets have become inured to debt ceiling negotiations after a technical default and credit ratings downgrade in 2011 helped send the S&P 500 down almost 20%. Talks to raise the debt ceiling had no noticeable effects on the stock market in 2016 or 2018.



Source: CFRA Research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2013년에는 부채 한도 조정 협상이 장기화 되면서 S&P500 지수가 5.8% 하락했지만, 2016년이나 2018년 비슷한 상황을 또다시 맞이했을 때는 월가가 이같은 위기 위협을 만들어진 것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반응은 크지 않았다고 샘 스토펬 CFRA 리서치의 수석 투자 전략가는 설명했다.

크레인데이터의 피터 크레인 대표는 머니마켓과 같은 민감한 시장에서는 패닉이 커지고 있다는 모습

은 없었다며 "그들(민주당과 공화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갈 수 있지만 다들 양측이 엄포를 놓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시장진단)-美 금리 충격에 中 불확실성까지..코스피 바닥 단정하기 일러

서울, 9월 29일 (로이터) 이지훈 기자 - 서울 주식시장에서 코스피가 연일 급락하고, 외국인이 10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돌아 대규모 물량을 쏟아냄에 따라 시장참가자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초 미국 채권금리 급등에 따른 글로벌 증시 약세 압력이 최근 재현되고 있다면서 국내외 경기 개선세 지속 여부가 최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 ▲ 망가진 시장 심리

코스피는 전날 1.1% 하락에 이어 29일 장중 최대 2.2% 하락해 3월 29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 헝다(恒大·에버그란데)그룹 관련 불안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을 사들였지만, 오늘 10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돌아섰다. 그 규모는 6600억원어치에 달한다.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3개월 만에 1.5%대로 가파르게 오르자 글로벌 증시는 성장주 중심으로 약세 압력을 받은 데다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사의 부정적 실적 전망 등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심리가 크게 악화된 점 등이 국내 증시를 압박했다.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최대 3.3% 하락했고, SK하이닉스 주가도 3.7% 내려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외 미국 부채한도 협상 및 중국 헝다그룹 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도 불거지면서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쳤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부정적인 재료가 한꺼번에 터지고, 코스피가 기술적으로도 무너지면서 시장 심리가 크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 ▲ 금리 급등 공포 데자뷰?

국내 시장전문가들은 최근 코스피 부진이 미국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글로벌 증시를 압박했던 지난 1분기 흐름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연초 1% 부근에 머물렀던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2월 하순부터 인플레이션 압력과 미국 경기 부양책 영향 등에 급등하기 시작해 3월말에는 1.7%대까지 올랐다.

이 시기 코스피는 연초 급등분을 반납한 채 한동안 3천 포인트를 밀돌았다. 10년물 금리가 1.6%를 돌파했던 2월 26일 외국인은 역대 최대 규모로 국내 주식을 팔아치웠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는 슬금슬금 오를 때는 괜찮지만, 고개를 너무 드리밀면 늘 악당이었다"면서 "지난 2월 중순 이후와 (시장 흐름이) 매우 유사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당시 중요했던 것은 금리 수준보다 금리와 주가 변동성이다"면서 "아직 금리 고점, 주가 바닥을 단정짓기는 이르다"고 덧붙였다.

#### ▲ 경기 펀더멘털 재점검

이런 가운데 향후 코스피 전망에 있어 지속적인 경기 개선세가 뒷받침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 등에 따른 금리 상승에도 경기 개선세가 동반된다면 증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중국발 경기 둔화 가능성은 우려 요인으로 꼽혔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시장이 단기 변동성 확대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소비 및 제조업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금리 상승 속도가 제어되면서 다시 펀더멘털에 기반한 상승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면서 "4분기에는 연말 소비시즌, '위드 코로나' 정책 등에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소비가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변화 조짐들은 재고 축적 수요로 먼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나정환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성장을 전망치 하향 조정 등 중국의 전력난으로 인한 공

급망 병목현상 심화 및 글로벌 생산부족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글로벌 경기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지수 자체를 낮춰서 봐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원 부국증권 연구원도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와 함께 글로벌 경기가 성장하는 쪽으로 기대가 있었는데, 중국부터 시작되는 생산 부진이 미국 소비 부진으로 연결될 가능성에 시장 우려가 '스태그플레이션' 방향으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 **(초점)-'통화정책 결정에 주택가격 명시적 고려'..서영경 위원 주장 현실화 가능성은**

서울, 9월 29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통화정책을 운용할 때 주택가격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금융통화위원의 주장이 나오면서 채권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최근의 변화된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을 반영하며 현재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이라는 두 축을 기반으로 결정되고 있는 국내 통화정책의 운용틀에도 변화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영경 위원 "통화정책 운용시 주택가격 명시적 고려 논의해야"

논란에 불을 붙인 것은 서영경 금통위원이다.

서 위원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강연을 앞두고 배포된 자료에서 유럽중앙은행(ECB),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과 같이 통화정책을 운용할 때 주택가격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을 우리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 위원이 언급한 사례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뉴질랜드다.

뉴질랜드는 올해 3월 중앙은행의 중요 책무에 주택가격 안정을 포함시키는 등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을 사용하는 데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같은 변화를 주도한 것은 뉴질랜드 재무부다. 그랜트 로버트슨 뉴질랜드 재무장관이 지난해 9월 뉴

질랜드중앙은행(RBNZ)에 직접 서한을 보내 부동산 가격을 통화정책 결정 시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같은 요청에 RBNZ가 미온적으로 나오자 중앙은행법 수정 권한을 가진 재무부가 중앙은행의 책무를 아예 바꿔버린 것이다. 바뀐 중앙은행법에 따르면 RBNZ의 통화정책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제주체들의 진입장벽을 낮추려는 정부의 주택정책 목표에 합치해야 한다. 중앙은행법상 통화정책의 책무가 이같이 구체적으로 바뀌면서 정책결정이 부동산 가격에 상당 부분 구속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달 23일 선진국 중 최초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노르웨이 중앙은행의 경우 지난 3월부터 금융불균형 누적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금리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결문에 강조해 오기도 했다. 특히 3월과 6월 의결문에는 '통화정책 결정에 주택가격 상승을 의미 있게 고려하고 있다'는 표현을 삽입하기도 했다.

물가지표에 자가주거비를 반영할 예정인 유럽중앙은행(ECB)의 행보도 중요한 변화다.

유로지역 소비자물가(HICP)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하려는 시도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취임한 2019년 말부터 시작됐다. 경제주체들의 의식주에 수반되는 주요 비용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게 소비자물가 통계의 주요 목표인데 여기에 자가주거비가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물가가 과소 추정되고 그 결과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필립 레인 ECB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자가주거비를 물가지표에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1년 6개월간의 검토 끝에 지난 7월 이같은 내용을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에 공식 요청했다.

▲글로벌 트렌드 변화..국가별 차별화된 접근 필요

한은 관계자들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파장을 완화하기 위해 각국이 저금리, 재정정책 부양정책을 사용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가격이 요동을 쳤고, 이에 대한 통화정책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국가별로 정부와 중앙은행의 관계, 부동산 시장의 구조 등이 판이하게 다른 만큼 일률적인 틀로 접근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질랜드의 경우 중앙은행의 책무를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재무부에 있는 만큼 정책적 필요에 따라 고용에 이어 주택가격 안정이 포함된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르웨이중앙은행의 경우 단순히 의결문에 금융불균형을 강조하는 것뿐 아니라 향후 기준금리 인상 경로를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미리 발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차이를 보인다.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 통계에 포함시키는 문제 역시 국가별로 상이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대 시장이 발달한 미국의 경우 임차료 상당액으로 자가주거비를 추정하고 있는 데 반해, 호주나 뉴질랜드 등은 주택구입비 중 토지구입액을 제외한 순취득가액을 물가에 반영하는 등 나라별로 통계 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공통적인 입장은 소비자물가에 자가주거비를 반영하는 것이 소비자물가 통계 취지에 맞다는 것인 듯하다"며 "다만 이를 어떻게 반영하느냐는 각국 입장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은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도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금융불균형 문제를 의사소통하면서 주택가격 등에 대한 포괄적인 고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지금도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같이 고려해서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있다"며 "금융불균형을 의사소통할 때는 차입이나 가계부채 등 여러 측면을 다 포함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외에서 주택가격에 통화정책 결정을 연동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맞다"며 "금통위 내부에서 여러 토론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달러/원 월간 전망)-대외 리스크 산적 vs '이미 반영' 인식..빅피겨 뚫리나**

서울, 10월 1일 (로이터) 박예나·이지훈 기자 - 9월 중 연고점을 갈아치우며 상승 변동성을 키웠던 달러/원 환율의 10월 전망에 대한 시장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10월 대외 리스크 전개 상황 따라 환율이 추가 상승 시도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과 새로운 재료 없이 일방적인 오름세를 이어가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맞서고 있다.

연초보다 이미 100원 넘게 올라 '빅 피겨'인 1200원에 바짝 다가선 달러/원 환율은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포문을 열게 될 테이퍼링 개시 압박, 미국 정부 섰다운 우려, 공급 병목현상에 따른 물가 상승 압박에 더해 중국 헝다(恒大·에버그란데)그룹 관련 노이즈와 중국 경제 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에 노출된 채 출렁거릴 것으로 예상됐다.

로이터가 시장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월 환율 예상 범위(평균)는 1161.5-1197.1 원이다.

지속적으로 저점을 높여온 달러/원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 아래 일부 시장 참가자들은 1200원대 진입 가능성도 열어뒀다. 글로벌 시장 여건상 강달러 모멘텀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 같은 환율 흐름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환율 상승 변동성을 자극할 대외 리스크 요인들은 이미 시장에 노출돼 파급력이 약화될 수 있고, 환율 급등 시 수급상 고점 대기 매물 유입 기대가 아직 유효한 만큼 환율이 1200원대로 일방적인 상승 압력을 높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로이터가 정리한 전문가별 코멘트:

▲ 김장욱 팀장 (신한은행)

"헝다 사태, 미국 부채한도 협상 및 테이퍼링,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 이미 노출된 재료 영향력은 다소 약화되고 강달러에 대한 민감도도 떨어질 수 있겠다. 달러/원 고점 확대 시도가 있을 수 있지만 새로운 모멘텀이 뒷받침되지 않아 고점 진전은 제한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하단은 탄탄한 달러 수요 등에 받쳐지면서 환율은 좁은 박스권 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예상 거래 범위 : 1170-1196 원

▲ 이연중 과장 (우리은행)

"중국 헝다그룹 디폴트 우려감 및 미국 부채한도를 둘러싼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 연준의 테이퍼링 공식화, 유가 상승 등에 따른 미국 국채수익률 상승 등으로 달러 강세를 전망한다. 다만 앞선 강세 재료들이 선반영된 측면이 있고, 빅 피겨 1200원을 전후해 고점 인식 네고물량 출회, 차익 실현성 달러 매도세로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한다."

예상 거래 범위 : 1160-1200 원

▲ 조영복 차장 (중국공상은행)

"헝다 이슈는 리만 사태 잔상으로 과잉 리스크 반응을 보이는 듯하다. 헝다 이슈가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희박한데 헝다 익스포처가 중국 전체 규모에 비해 크지 않고 인민은행이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심리적 통제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테이퍼링 이슈도 과거 대비 준비가 돼 있어 시장 충격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단기 자금시장에 풍부한 달러 유동성을 고려할 때 달러 강세도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 정부 디폴트 가능성도 과거 사례를 볼 때 현실화되긴 어려워 보인다. 다만 시장 심리가 좋지 않은 점은 원화 약세를 가속화할 수 있고 기술적으로 상단이 뚫려 있는 정도 불안한 요소다. 당국 경계감 및 10월 금리 인상 기대감 등이 상단을 제어해줄 것이며, 시장 불안 해소 시기에는 생각보다 빠르게 약세분을 되돌릴 수 있다고 본다."

예상 거래 범위 : 1150-1200 원

▲ 고규연 팀장 (하나은행)

"미국 부채한도 협상 부결 우려, 테이퍼링 시행에 따른 미국 국채금리 상승, 여전한 헝다 관련 우려는 글로벌 달러와 달러/원 환율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차트상으로도 저점이 오르며 상승 추세가 이어져 아래쪽으로는 1165원이 강한 지지선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빅 피겨 1200원이 상향 돌파될 경우 1215원까지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 다만 저항선마다 수출업체 비롯한 고점 대기 매물이 환율 상승 속도를 제어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외 변수

에 좌우되는 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예상 거래 범위 : 1165-1210 원

▲ 이응주 차장 (DGB 대구은행)

"9월 FOMC가 사실상 판데믹 이후 통화정책 정상화를 향한 첫발로 미국 국채 금리 급등과 달러 강세로 이어졌다. 다만, 자산시장의 광범위한 셀오프나 신흥국 자본유출 등 위험 회피 움직임은 관찰되지 않고 있다. 미국 부채한도, 헝다 사태, 중국 전력난, 글로벌 물류대란 등 최근 여러 잡음이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정책기조 전환 시점에 불거지면서 달러 강세를 촉발했다. 리스크를 관리할 시점은 맞으나, 달러 강세는 이미 6월 이후 상당 기간 진행됐고, 미국 국채금리 또한 가격 저항 측면에서 마냥 오를 수는 없기 때문에 단기 흐름상 1180-1195원 사이가 고점이 될 수 있다. 증시도 9월 들어 외인 수급이 상당히 개선돼 달러/원은 내달 초 미국 고용지표와 3분기 기업실적 시즌을 계기로 하락 반전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 거래 범위 : 1170-1195 원

▲ 김동욱 팀장 (KB 국민은행)

"환시는 국내보다 대외 요인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헝다그룹 파산설과 미국 연방정부의 섀다운 이슈, 더욱이 지난 9월 FOMC 회의에서 미 연준의 매파적 성향이 확인됨에 따라 불확실성과 위험 회피, 글로벌 달러 선호 등이 달러/원 추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은행 금통위가 예정돼 있으나, 8월 인상 이후 2개월여 만의 추가 금리 인상은 쉽지 않아 보이고, 오히려 금리를 인상할 경우 기대감 소멸로 원화 강세 요인이 악화될 수도 있겠다. 국내보다 중국과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 크레딧 위험, 경기 둔화 우려 점증 등에 환율은 하단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가 예상된다."

예상 거래 범위 : 1155-1195 원

▲ 최동호 차장 (KDB 산업은행)

"연준 테이퍼링과 관련해 11월 의미 있는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강달러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수급상으로도 결제수요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환율이 1200 원대를 테스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연내 최소 1 회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과 환율 급등 때마다 일시적으로 나오고 있는 네고 물량은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이다."

예상 거래 범위 : 1170-1200 원

▲ 성혜미 과장 (NH 농협은행)

"중국 헝다그룹 유동성 위기 및 전력 부족난, 미국 연방정부의 섀도우 위기 및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 전환, 유가 상승 등 대외적 요인으로 인한 환율 상승이 예상되나 한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및 견고한 펀더멘털 등 대내적 요인들은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한다. 대내보다는 대외적 요인들에 따른 달러/원 상승 시도가 더욱 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상 거래 범위 : 1140-1200 원

▲ 김유미 연구원 (키움증권)

"11 월 FOMC 를 앞둔 경계감과 미국 국채 금리 상승 등으로 달러가 강보합권에서 머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달러/원 환율도 1100 원대 중·후반에서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거래 범위 : 1160-1185 원

▲ 문홍철 파트장 (DB 금융투자)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공급 병목현상 때문으로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가져와 달러 강세로 작용할 전망이다. 10 월에는 미국 부채한도 협상 불확실성 등이 남아 있어 달러 강세 지지 흐름이 예상되고, 헝다 문제도 해결 여부에 따라 환율에 상승압력을 미칠 수 있다."

예상 거래 범위 : 1165-1205 원

▲ 권아민 연구원 (NH 투자증권)

"최근 달러/원 환율은 위안화, 코스피 등보다 달러지수와 상관계수가 가장 높다. 다만, 중국 헝다 이슈에도 위안화보다 원화 약세폭이 컸고, 9 월 외국인 코스피 순매수에도 원화 약세는 심화됐다. 이는 최근 달러/원 흐름에 펀더멘털 요인이 아니라, 오버슈팅 가능성을 지지한다. 또한, 1190 원을 앞두고는 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확대될 수 있고,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수출은 선방하고 있다. 4 분기 유럽 경제 지표 반등에 따른 미 연준과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 '커플링'도 일방적인 미국 금리 상승세를 제약할 전망이다. 이에 달러/원 환율의 추가 상승압력도 완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예상 거래 범위 : 1173-1189 원

▲ 안영진 연구원 (SK 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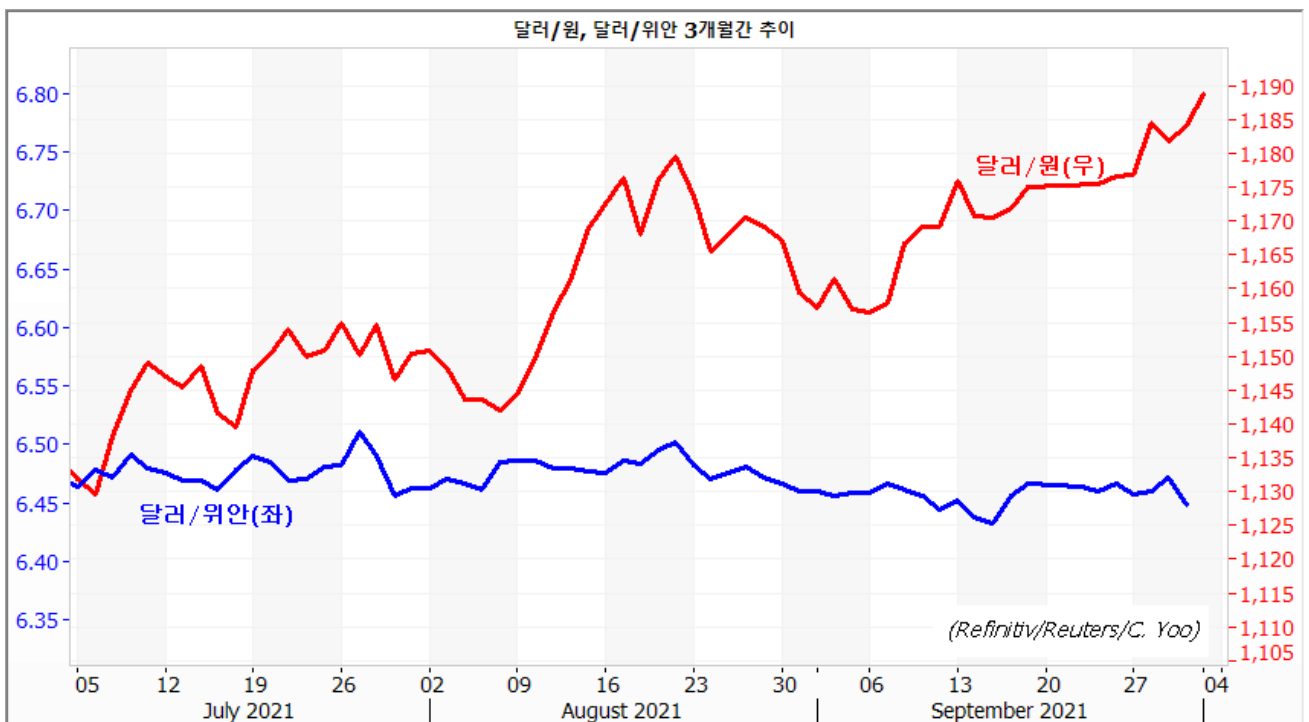
"최근 환시는 달러 강세를 메인 스트림으로 각종 리스크 요인들이 산재해 있다. 달러 강세 배경도 연준이 매파적 기조를 강화시킬 가능성, 델타 변이 정점 통과 이후 미국 경기 회복력 우위 등 지속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재료들이다. 위로는 1200 원 터치 여부, 아래로는 1160 원대 지지선을 박스권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9 월 하순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에 타격을 입히고 있는 (2 개의) 디폴트 리스크 등의 통제 여부에 따라 높낮이가 달라질 수 있다."

예상 거래 범위 : 1160-1190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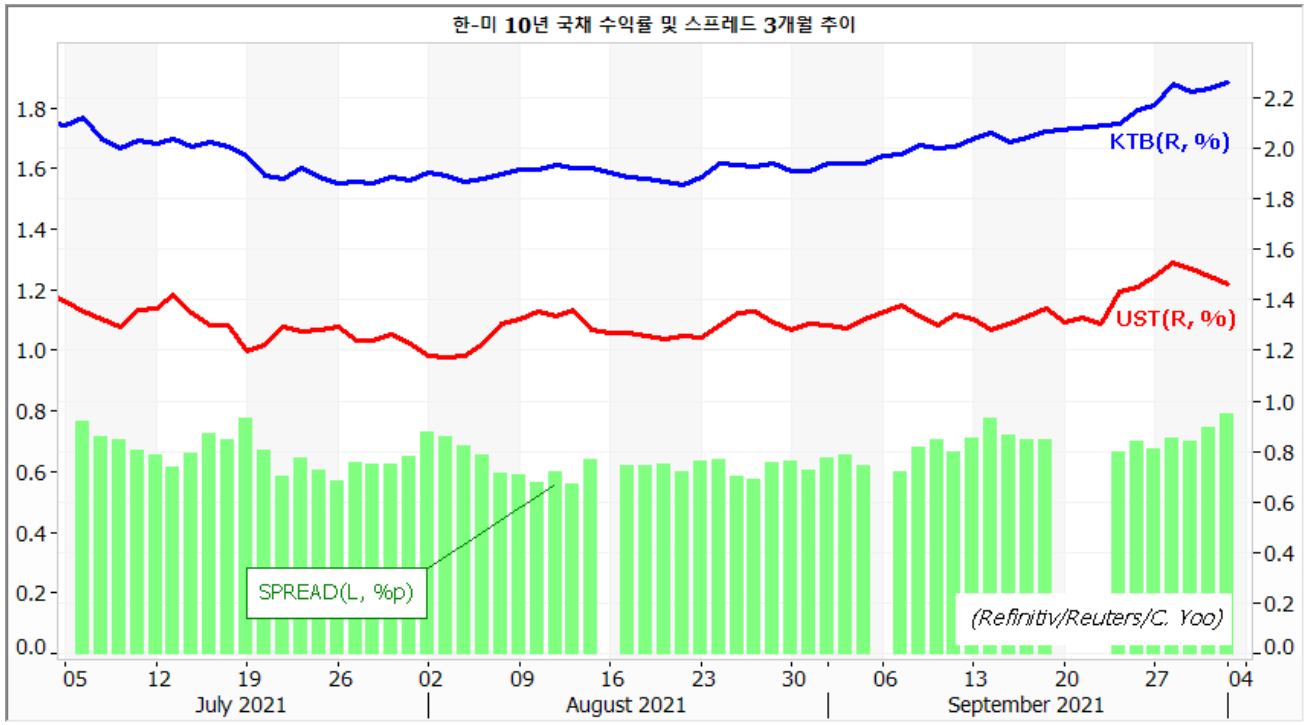
#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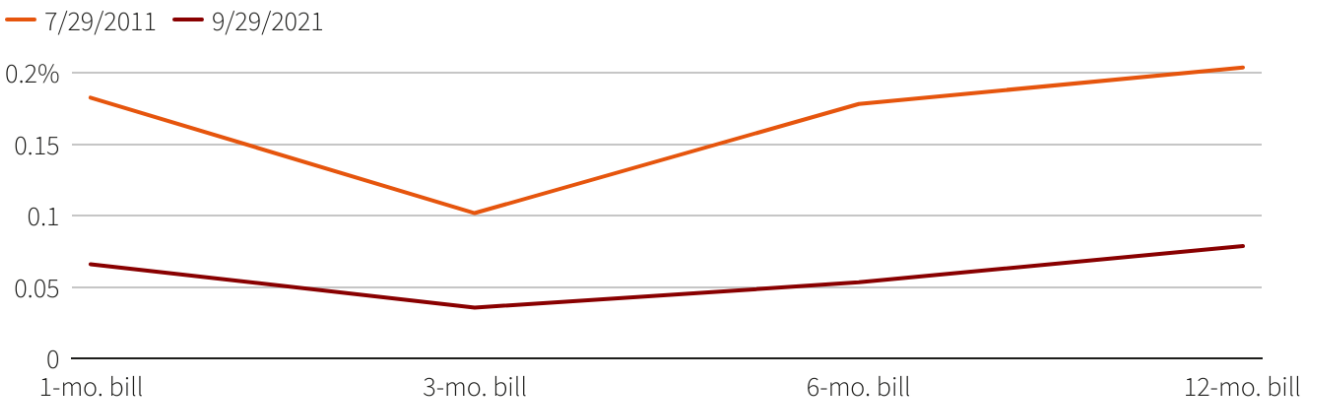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 Debt ceiling stress

Treasury Secretary Janet Yellen says the government will run out of cash around October 18. The impact on markets so far has been mild, but some worry is working its way into the T-bill market with bills maturing in the next month now yielding more than those maturing later. The same thing happened in 2011, but the market is not quite in the same level of stress y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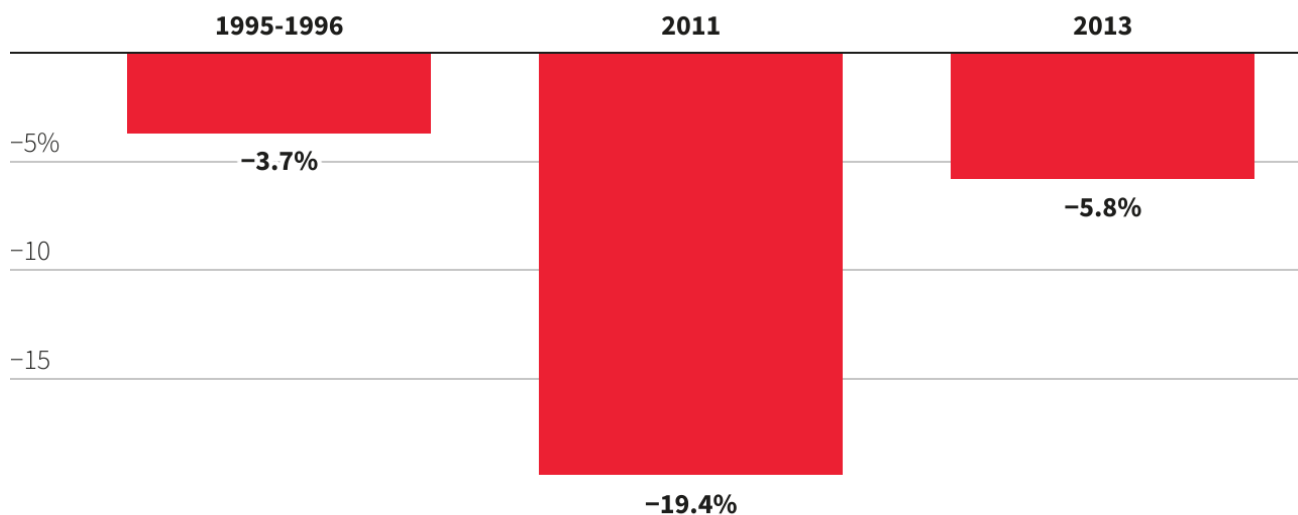


Note: The horizontal axis shows the yield on short term U.S. Treasury debt, with 1-month bills yielding more than 3-month paper  
Source: Refinitiv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 Weakening Effects from Debt Ceiling Standoffs

Markets have become inured to debt ceiling negotiations after a technical default and credit ratings downgrade in 2011 helped send the S&P 500 down almost 20%. Talks to raise the debt ceiling had no noticeable effects on the stock market in 2016 or 2018.



Source: CFRA Research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